

2023

7.4

CERIK 시장동향

2024년 06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

○ 매매시장	2
○ 임대차시장	5
○ 공급	6
○ 수요	9
○ 금융	10
○ 부동산산업	11
○ 통계요약표	12

CERIK

Construction &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

한국건설산업연구원

당월 부동산시장 현황 요약 및 추이 분석

- 5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월간 0.03% 올라 2개월 연속 상승세 기록,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 0.12% 하락
- 4월 전국 토지거래량 중 외국인 관여 거래는 1.29%로 집계, 2006년 거래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준 이어져

- ◎ **(종합)** 전국 월간 주택거래량이 2023년 8~9월 수준을 넘어서는 등 수요 유입세 커져 수도권 가격 상승
- ◎ **(매매)** 5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0.03% 상승한 데 반해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.12% 하락
 - 수도권 중에서는 특히 서울의 상승세가 뚜렷함. 서울 지역의 월간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0.01%^(4월) → 0.06%^(5월)로 확대되는 반면 인천지역과 경기지역의 등락폭은 4월과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됨.
 -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5월 0.12% 하락하며 4월(0.08%)에 비해 매매가 하락폭이 소폭 확대됨.
- ◎ **(거래)** 4월, 전월 대비 주택 매매거래량은 수도권 19.4%, 지방 3.3% 증가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양 지역 모두 지난 12개월래 최고치를 경신
 - 수도권 중 서울의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며,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19.8%와 14.5% 증가했지만, 3월에 기록한 2월 대비 거래량 증가폭에 비하면 다소 둔화됨.
 - 지방 5대광역시에서는 광주(-0.1%)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최소 2.5% 내지 최대 11.2% 증가함.
 -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2개월가량 연기되면서 정책 적용이 예고된 9월까지 거래량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.
 - 4월 전국 토지거래량 중 외국인이 관여된 거래는 1.29%로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(2023년 10월 1.37%로 최대)함.
- ◎ **(임대차)** 신규 실행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금리 3.91%로 집계돼 전월에 비해 재차 하락하였으며, 그 영향으로 5월 들어 아파트 전세가는 0.12%, 월세통합가격 0.25% 상승
 - 전월세 거래량은 YoY 11.9% 증가했는데 이는 월세 거래량 증가(YoY 22.7%)에 영향을 받은 것임.
- ◎ **(공급)** 1월~4월 공공부문 인허가는 지난해 절반 수준(-49.6%)이며 민간부문은 19.9% 감소
 - 5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2.9배 증가한 반면, 지방 아파트 분양 물량은 22.7% 감소함. 다만 이는 4월 수도권 분양 감소 및 지방 분양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해해야 함.
 - 4월 전국 미분양 MoM 10.8% 증가해 1년 만에 7만 호 초과했고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은 42개월 만에 1.3만 호를 넘어섬.

매매시장

1_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

- 5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, 0.03% 상승해 2개월 연속 상승세
- 4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.8만 호로 집계돼 전월과 유사한 수준인 MoM 19.4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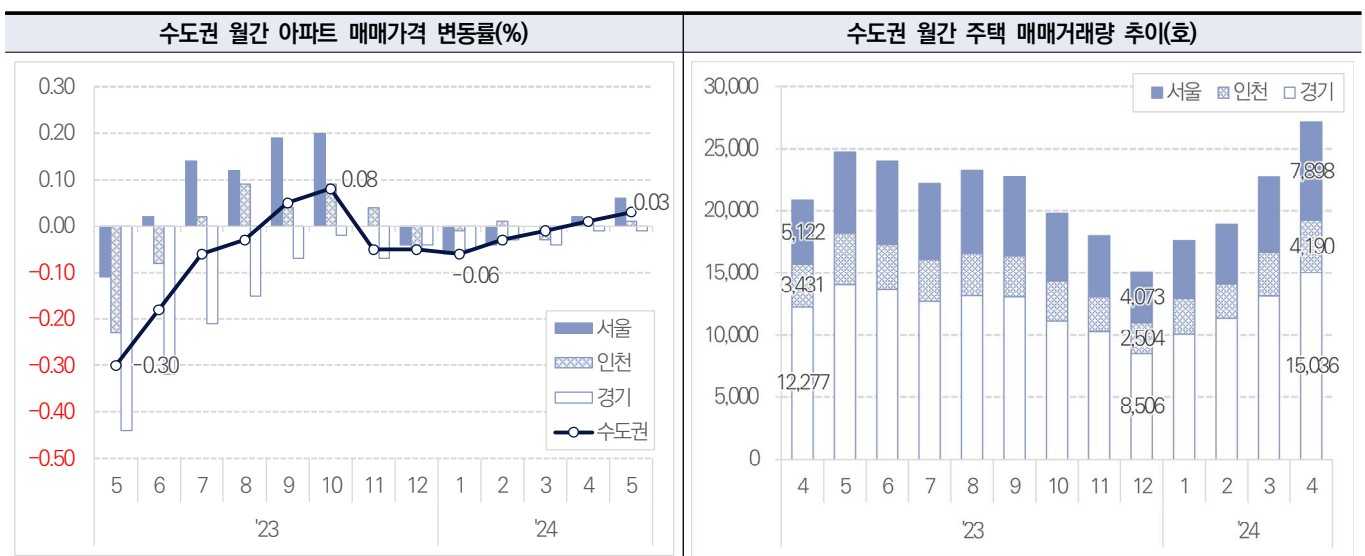
◎ (가격)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5월 들어 상승 가속화(0.01%^{前月} → 0.03%^{今月})

- 3월 들어 0.00%로 월간 보합세를 보였던 서울의 상승세는 4월 0.01%, 5월 0.06%로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음. 다만 여전히 연 누적 기준으로는 0.02% 하락한 상태이며, 내달 상승으로 전환할 전망이다.
- 인천지역은 5월 한 달간 0.01% 상승해 4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나타내었음. 2월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전환하였지만 상승폭이 서울만큼 커지지 않음.
- 5월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.01% 하락해 4월과 동일한 수준의 낙폭을 기록함. 이로써 연 누적 하락폭은 1.02%로 집계됨.

◎ (거래) 4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 7,603호로 집계돼 전월 대비 19.4% 증가

- 수도권 세 지역 중 서울의 MoM 거래량 증가가 가장 두드러짐(29.5%). 인천과 경기도 각각 19.8%와 14.5% 증가함.
- 지난달(3월)에는 인천의 거래량 증가폭이 25.3%에 달했지만 금월에는 19.8%로 집계돼 다소 증가폭이 줄어들었고 경기도 역시 전월 15.9%에서 14.5%로 증가폭이 감소함.

수도권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※ 주 :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.

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부동산114

매매시장

2_지방(지방광역시·8개 도)

- 5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 0.12% 하락... 4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다소 낙폭이 줄어드는 듯했지만 5월 들어 낙폭 재차 증가
- 4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는 3.0만 호로서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이 52:48 수준으로 줄어들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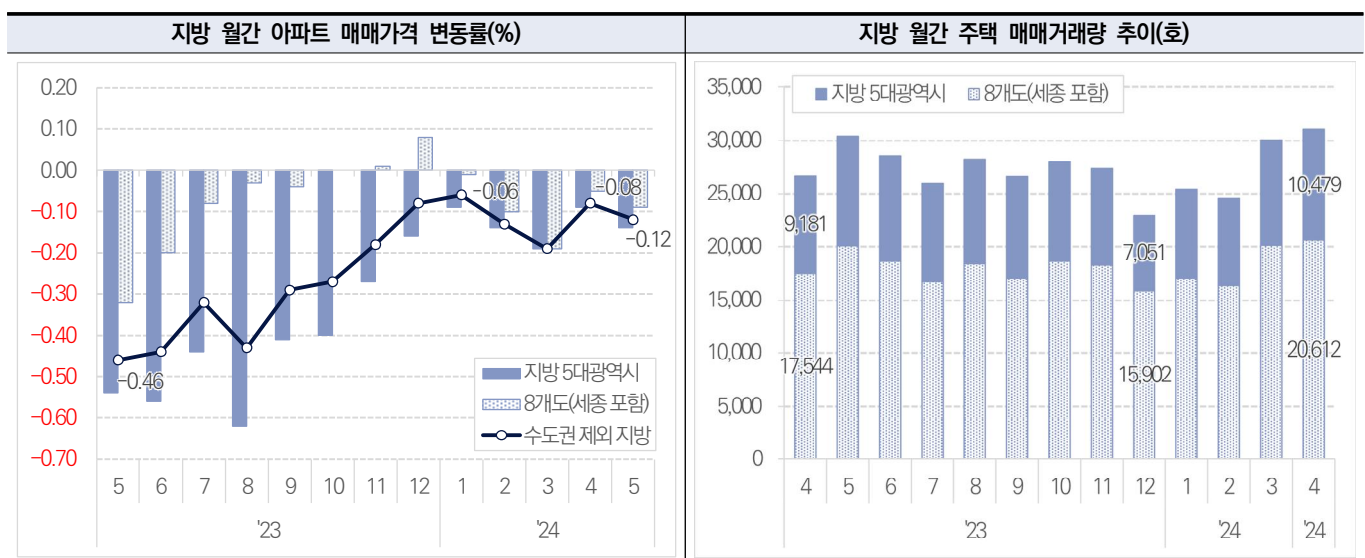
◎ (가격) 5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 변화율은 5대 광역시와 8개도 모두 -0.04~0.05%p를 기록

- 당초 4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.05%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사후 집계 결과를 추가한 결과 0.08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월은 0.12%로 낙폭이 커짐.
- 4월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 변화율은 -0.09%로 집계돼 24개월래 월간 하락 폭으로는 가장 적었지만, 5월 들어 0.14%로 하락폭이 확대됨.
- 세종을 포함한 8개도 지역의 가격이 재집계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등락 폭의 차이를 나타냄. 8개도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2024년 1월 이후 지속 하락해 누적 0.4% 하락함.

◎ (거래) 4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 1,091호로 집계돼 MoM 3.3%, YoY 16.3% 증가함.

- 지방 5대광역시와 8개도의 거래량은 각각 MoM 5.1%와 2.4% 증가함.
* MoM 거래량 증가 : 부산 7.0% / 대구 4.2% / 광주 -0.1% / 대전 11.2% / 울산 2.5%
- 대출 관련 정책 영향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연기되면서 정책 적용까지 남은 기간 동안 거래량 증가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음.

지방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※ 주 : 매매가격 변동률의 경우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.

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부동산114

매매시장

3_거래속성

- 4월 전국 토지거래량 중 외국인 비중은 1.29%, 통계 집계 시작한 2006년 0.2%대로 시작한 이후 지속 증가
- 4월 비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은 전체 매매의 24.1%

◎ (외국인 토지거래) 4월 전국 토지거래량 중 외국인 비중은 1.29%로 2006년 이후 지속 증가

- 2006년 0.20% 수준이었던 외국인 토지거래 비중은 지속 증가해 2023년 10월 1.37%까지 상승
- 2009년 상반기 외국인의 토지거래 비중이 높았던 것은 동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영향으로 추정

◎ (주택 유형별 거래 비중) 4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중 비아파트 비중은 24.1%로 집계¹⁾

- 이는 거래 통계가 집계된 '06년 1월 이후 월간 비아파트 매매 비중 평균이 32.1%였던 데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써,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거래집중도가 2021년과 2022년에 비해 하락함.
- 2021년과 2022년의 비아파트 주택 거래 집중은 먼저 '14년 이후 지속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늘어났다는 점, 그리고 2017년 도입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중 단기임대(4년)가 만기되는 시점이 겹쳤다는 점 등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해볼 수 있음.
- 건수 중심으로 살펴보면, 4월에 체결된 비아파트 매매는 1만 4,158건으로 집계됨. 비아파트 매매건수 부진 현상은 2023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, 역사적으로는 2009년, 2012년~2013년과 유사한 수준임.

주택매매시장 거래 속성

전국 토지거래 중 외국인 거래 비율 추이(%)



전국 주택 매매거래 중 비아파트 비율 추이(%)



※ 주1 : '20년 4월 전국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7.8%로(동 기준: 경기도, 2020), 집합건물의 요체를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분석함.
 ※ 주2 : 등기 통계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속성을 지녀 전월 집계와 상이할 수 있음.
 ※ 주3 : 비아파트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매매 통계 중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을 의미함.
 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법원 등기정보광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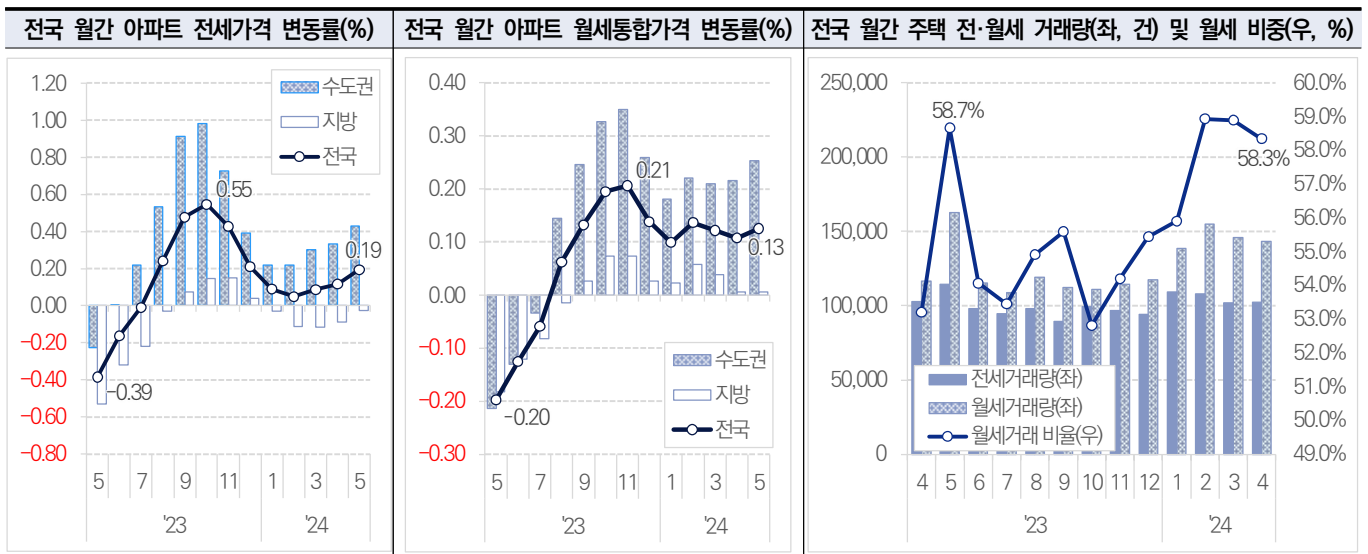
1) 비아파트(단독·다가구·다세대·연립주택)의 경우 동(棟)수를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아파트의 기본 단위인 호(戶)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임대차시장

- 5월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0.19% 상승해 상승 폭이 4개월 연속 확대(0.05%^{2월} → 0.19%^{5월})
- 4월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.4% 감소하였으나 지난달에 비하면 0.3% 증가

- ◎ **(전세)** 5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0.09%에 이어 금월 0.12% 상승해 상승폭을 키우는 추세
 - 5월 들어 기록한 수도권 전세가 월간 상승폭은 0.43%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했고 지방 전세가는 월간 0.03% 하락해 올 들어 가장 작은 낙폭을 보임.
- ◎ **(월세)** 5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통합가격²⁾은 0.25% 올라 지난달 0.22%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, 지방은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인 0.01% 상승하는 데 그쳐
 - 7개월 동안 상승하던 지방 아파트 월세통합가격 상승폭이 4월 들어 보합에 가까운 0.01%로 줄어들면서 하락세가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5월에도 여전히 상승세 유지
- ◎ **(거래량)** 4월 전·월세 거래량은 22만 7,73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.9%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월세 거래량이 22.7%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.
 -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이어지면서 비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급감함.
 - 전·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가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5월 집중됐던 거래 패턴에 변화 발생 가능성 존재함.

전국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국토교통부

2) '월세통합가격(지수)'이란 월세, 준월세, 준전세 지수를 각각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임. 이하 동일함.

공급

1_인허가

- 국토교통부의 공급 통계 변동사항으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사이 통계 해석에 차이 발생
- 주택 인허가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인 가운데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8개도에서 집계된 공공부문에서만 증가(YoY 143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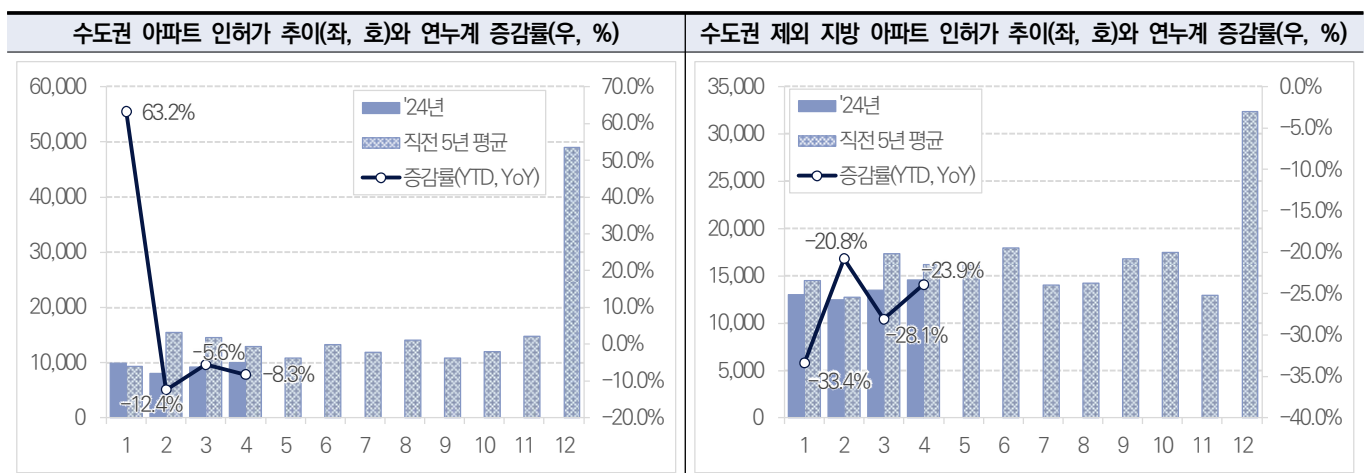
- ◎ (주택 전체) 1월~4월 지역별 공공부문 인허가는 지난해 절반 수준이었고 민간부문은 20%가량 감소
 - 전반적으로는 지방광역시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누적치 대비 27.5% 감소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함.
- ◎ (APT) 4월 들어 인허가를 득한 전국 아파트는 2만 4,629호로서 직전 5년 평균 2만 9,130호에 비해 18.2% 적은 수준
 - 1~4월 누적 수량은 9만 652호로 집계돼 2014년(8만 4,403호)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함.

주택 인허가 현황(YTD)

인허가 현황 (호, %)	지역별 합계				공공부문				민간부문			
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
2023년 1~4월	129,831	49,096	31,615	49,120	4,926	3,071	1,339	516	124,905	46,025	30,276	48,604
2024년 1~4월	102,482	41,583	22,909	37,990	2,485	498	731	1,256	99,997	41,085	22,178	36,734
전년 동기 연누적 대비	-21.1%	-15.3%	-27.5%	-22.7%	-49.6%	-83.8%	-45.4%	143.4%	-19.9%	-10.7%	-26.7%	-24.4%

※ 자료 : 국토교통부

아파트 인허가 추이



※ 자료 : 국토교통부

공급

2_아파트분양

-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은 2만 1,950호로 지난달에 비해 18.3% 증가
- 당초 계획했던 5월 분양 물량인 3.5만 가구에 비하면 적지만 계획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

◎ (수도권) 4월 아파트 분양 저조(3,657호) 이후 5월 들어 MoM 2.9배 증가한 1만 446호 분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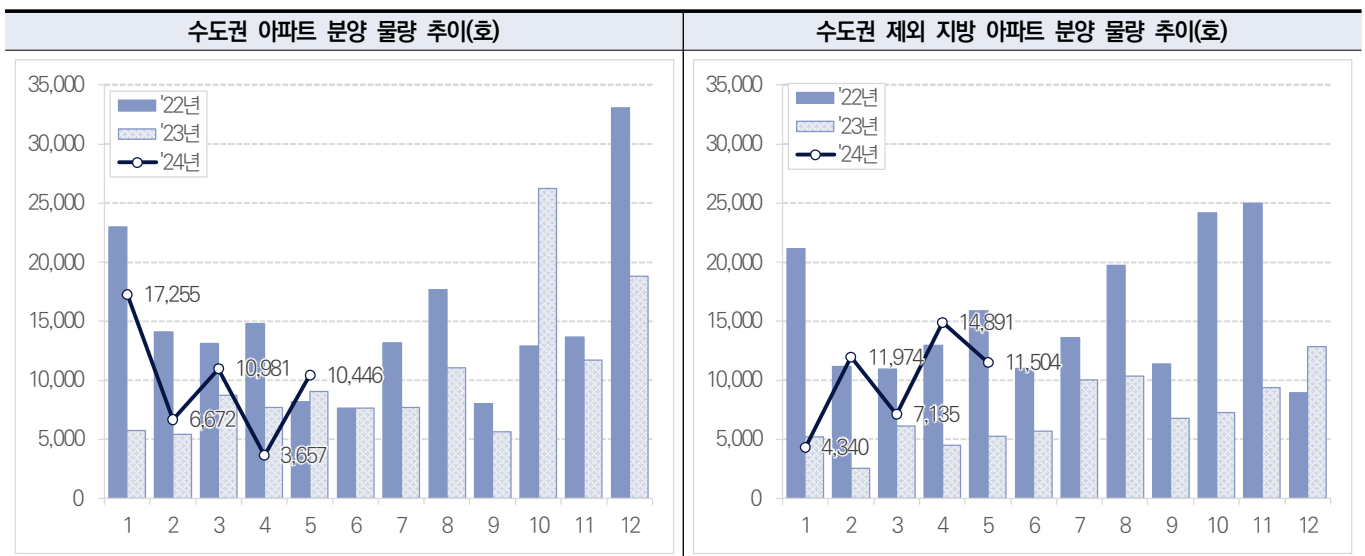
- 2024년 1월에서부터 5월까지 누적 분양 물량은 4.9만 호로 집계돼 2023년 같은 기간 누적치에 비해 33.6% 증가한 반면, 직전 최고치인 2022년 1월~5월 누적치(73,237호)에 비하면 33.1% 적음.
-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24년 동안의 1~5월 누적 분양 물량 평균치(50,950호)에 비하면 2024년 현재 누적 분양 물량은 3.8% 적은 수준임.

◎ (지방) 지방 5월 분양 물량은 11,504호로 집계돼 지난달 1.5만 호에 비해 22.7% 감소

- 5월 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올해의 1월~5월 누적 분양 물량을 비교하면 올해 누적 분양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2.1배 이상 많음.
-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는 올해 들어 2월 240호 분양 이후 처음으로 418호 규모의 분양 실적 기록했고 제주도는 2월 728호 이후 분양이 4월 현재까지 없는 실정

◎ (분양계획) 6월 분양계획 물량은 5월 분양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~4월 분양계획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인 2.4만 호 수준으로 집계됨. 따라서 1.5만 호 이상의 분양 물량을 시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.

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



※ 자료 : 부동산114

공급

3_미분양

- 4월 전국 미분양은 7만 1,997호로 집계돼 지난달에 비해 7,033호(10.8%) 증가해 2022년 말 이후 최대 증가 폭 보여
-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은 전월(3월) 수도권에서 소폭(24호) 감소했지만, 4월 들어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재차 증가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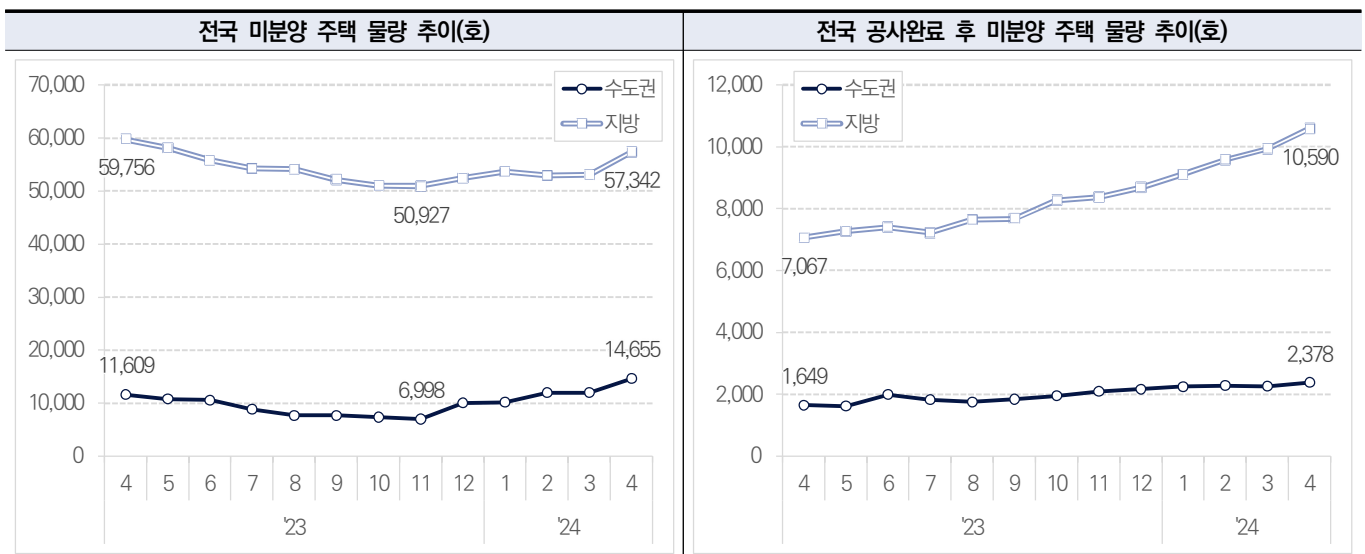
◎ **(미분양)** 4월 전국 미분양은 MoM 10.8% 증가하여 1년 만에 7만 호를 초과함.

- 수도권 미분양은 지난달에 비해 2,678호(22.4%) 증가한 1만 4,655호를 기록함.
- 이는 전국 미분양이 직전 고점을 기록했던 2023년 초 미분양을 넘어선 수치이며, 시계열적으로는 2017년 5월 이후 83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임.
- 서울 미분양은 MoM 3.3% 감소했지만,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MoM 13.4%와 59.6% 증가해 수도권 미분양 증가 폭이 확대되는데 원인이 됨. 특히 인천은 전국에서 MoM 미분양 증가량이 최대(1,591호).
- 지방 미분양은 5만 7,342호로 집계돼 지난달에 비해 8.2%(4,355호) 증가함. 증가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부산(1,344호)으로서 전월 대비 41.7% 증가하였음.

◎ **(공사 완료 후 미분양)** 4월 전국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은 1만 3,230호로 집계돼 지난 2020년 12월 이후 42개월 만에 1만 3천 호를 초과함.

- 직전 저점인 2022년 5월의 6,830호에 비하면 1.9배에 달하는 공사 완료 후 미분양 물량이 잔존함.
- 월간 증가량도 774호로 집계돼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.

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 추이



※ 자료 : 국토교통부

수요

- 5월 매매수급동향, 전국에서 수요 증가 추세를 보이며, 매매시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지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
- 주택가격전망 CSI 지수, 5월에도 4월과 동일한 101로 집계돼… 집값 상승이 일부 지역에서 현실화된 만큼 내달 더 높아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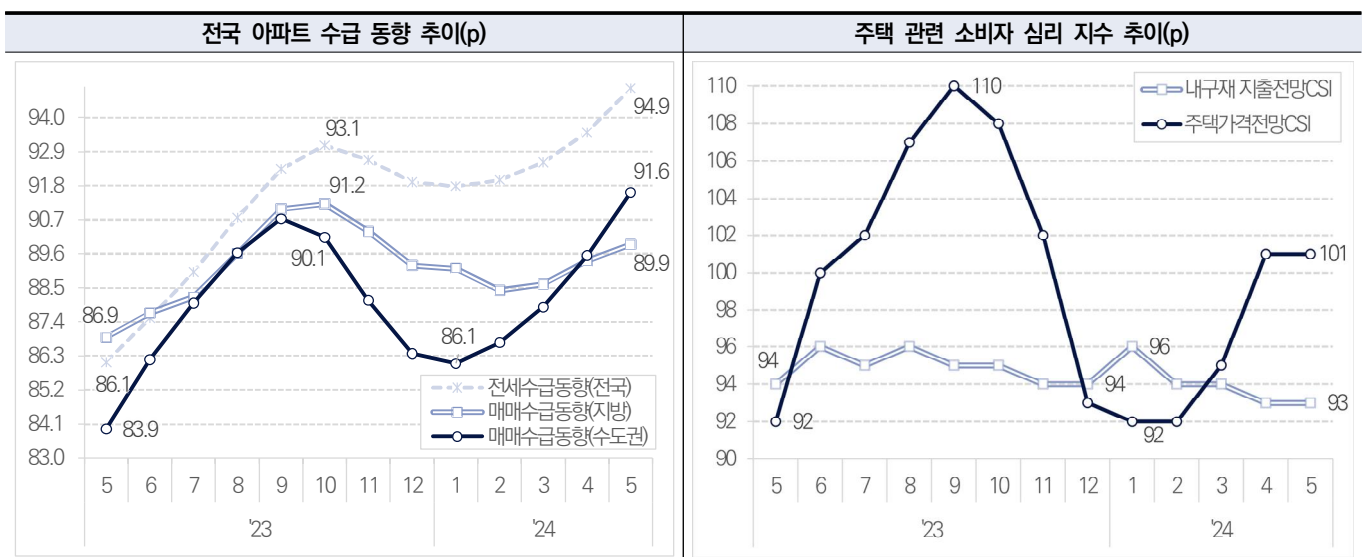
◎ (수급동향) 2024년 2월 이후 지역과 거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수요 증가세 지속되는 중

- 수도권과 지방의 5월 아파트 수급 동향 지수는 각각 91.6p와 89.9p로 지난달에 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짐.
- 5월 전국 전세수급동향은 94.9로 지난해 10월 기록했던 93.1을 초과해 임대차시장에서도 수요가 증가함.
-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2%대에 진입하는 등 예상보다 낮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며 가격 상승세가 크게 나타났던 지난 2020~2021년 상반기 수준으로 하락함. 이에 따라 예상했던 것에 비해 큰 수요 유입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.

◎ (소비자심리) 5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p로 4월과 동일한 수준

-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주택가격의 등락 전망은 상승과 하락이 거의 유사한 가운데 상승 전망이 소폭 많은 현상이 2달째 지속되고 있음.
- 내구재 지출 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96p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해 금월에도 93p를 기록함. 이를 종합하면 소비자 심리는 지난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및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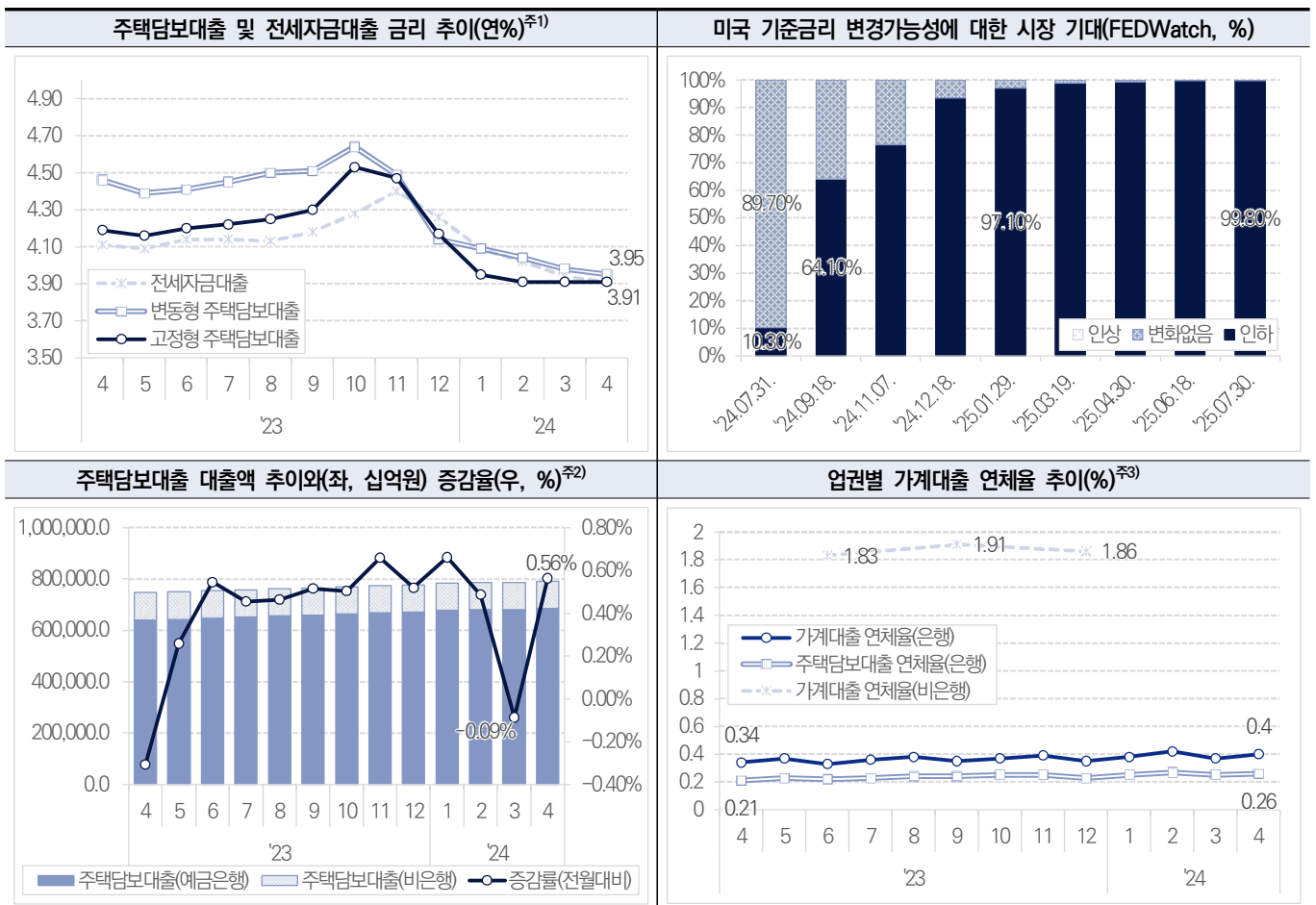
※ 주 :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생산되는 수급동향 자료 중 매월 말 지수를 월간 대표 지수로 처리하여 분석함.

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한국은행

금융

- ◎ (금리) 주택담보대출(변동형, 고정형) 및 전세자금대출의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금리, 3.9%대로 수렴
 -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기는 전월과 유사한 2024년 하반기이며 한 차례 인하가 예상됨.
- ◎ (대출액) 3월 주택담보대출액은 0.09% 감소했지만, 4월 다시 0.56% 증가해 기존의 증가 흐름 이어가
 -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하단이 2.9%대까지 떨어져 있어 5월 이후에도 대출액 증가는 이어질 전망이다.
 - 다만 은행 조달 금리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 이하로 금리가 하향 조정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3% 중반대에서 안정된 이후 대출액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임.

주택 시장 관련 금융 변수 추이



※ 주1 :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,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HF 월간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중위값(짝수인 경우 중위수 두 값의 평균)임.

※ 주2 : 본 자료에서 비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기구, 우체국예금, 종합금융회사 등 은행이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함. 이하 같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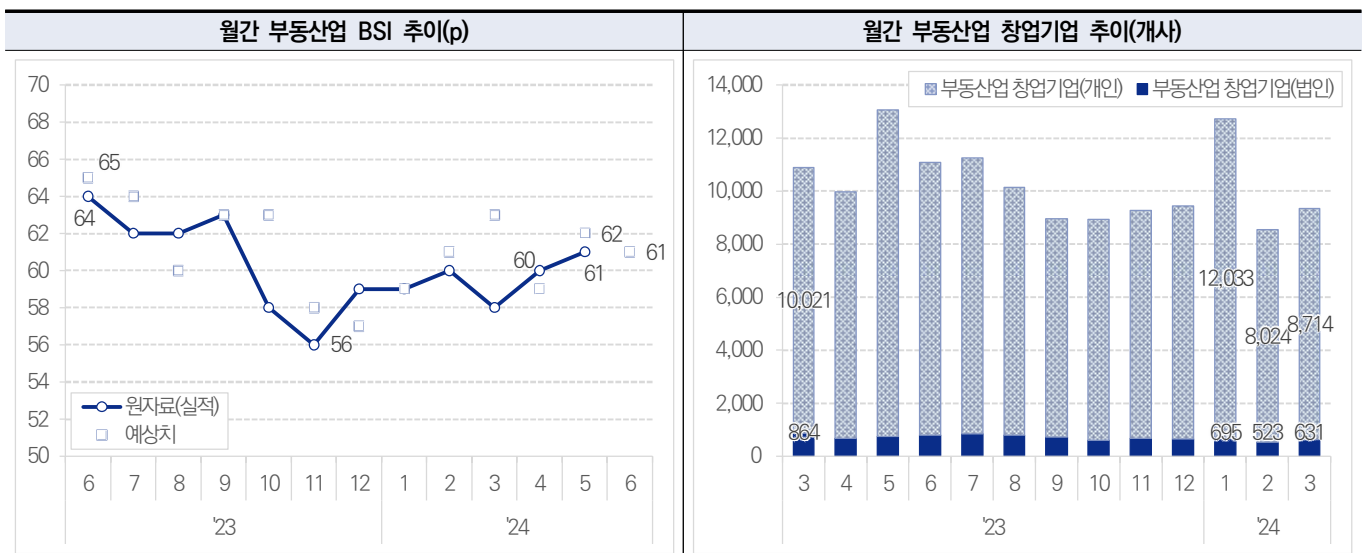
※ 주3 :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는 분기별로 집계되며, 임의로 분기 말(3·6·9·12월)에 입력하였음.

※ 자료 : 한국은행, 한국주택금융공사, 금융감독원, Chicago Mercantile Exchange

부동산산업³⁾

- ◎ (부동산업 BSI) 5월 부동산업의 업계 현황 기준 BSI는 61p로 지난달에 비해 1p 개선됨.
 - 이는 직전 주택가격 하락 전환 시기가 도래한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나 직전 고점인 2021년 10월(수도권 주택 가격 하락 시점과 동일)에 기록한 81p에 비해서는 20p 낮은 것임.
 - 과거 부동산업 업황 BSI가 50p 후반 내지 60p 초반을 기록한 시점은 2015년, 2020년, 2023년을 꼽을 수 있음.
 - 부동산업 BSI 6월 전망치는 61p로 5월과 동일함.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회복과 거래량 증가 등을 함께 고려하면 당초 전망치를 상회하는 업황 실적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.
- ◎ (부동산업 창업기업 수) 2024년 3월 부동산업 창업기업 수는 개인 8,714개와 법인 631개로 총 9,345개로 집계됨.
 - 이는 2월에 비해 개인 창업은 8.6%, 법인 창업은 20.7% 증가한 것이나 이는 지난달 창업기업이 2016년 이후 가장 적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임.
 -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~2022년 월간 창업기업 수 평균이 2.4만 개⁴⁾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월간 창업기업 수(금월 9,345개)는 2016년 이후 평균에 크게 못 미침.

부동산업 경기지수 및 창업기업 추이



※ 자료 : 한국은행, 중소벤처기업부

3) 본 고에서는 '부동산산업'의 범위를 데이터 출처의 정의에 따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'L.부동산업(68)'로 정의함.

4) 정책 사유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창업기업이 많았던 2020년 1월(13만 4,698개)을 제외한 평균임.

부동산시장 통계요약표

항 목		변화율 · 변화량						최신 집계치 ^{주1)}	최근 5년 변화 추이
		직전 5년		직전 3년		YoY	MoM		
		고점 저점	고점대비 저점대비	고점 저점	고점대비 저점대비	-	-		
거시경제	경기선행지수 (p)	114.8	0.0%	114.8	0.0%	4.9%	0.4%	114.8	
		95.7	20.0%	106.5	7.8%				
	소비자물가지수 (p)	114.1	0.0%	114.1	0.0%	2.7%	0.1%	114.1	
		99.2	15.0%	102.1	11.8%				
가격지수	수도권 아파트 매매 (p)	480.4	-9.3%	480.4	-9.3%	-0.6%	0.0%	435.7	
		303.7	43.4%	435.6	0.0%				
	지방 아파트 매매 (p)	333.7	-8.4%	333.7	-8.4%	-2.6%	-0.0%	305.8	
		240.2	27.3%	305.8	0.0%				
거래량	수도권 주택 매매 (건)	75,725	-64.2%	47,389	-42.8%	30.2%	19.4%	27,124	
		10,299	163.4%	10,299	163.4%				
	지방 주택 매매 (건)	77,078	-59.7%	50,135	-8.4%	16.3%	3.3%	31,091	
		15,462	101.1%	15,462	101.1%				
공급	전국 아파트 분양 (호)	63,520	-71.5%	63,520	-71.5%	21.7%	-2.8%	18,116	
		7,985	126.9%	7,985	126.9%				
	전국 주택 미분양 (호)	75,438	-4.6%	75,438	-4.6%	0.9%	10.8%	71,997	
		13,842	420.1%	13,842	420.1%				
금융	주택담보대출 금리 (%)	4.82	-0.89%p	4.82	-0.89%p	-0.31%p	-0.01%p	3.93	
		2.39	1.54%p	2.69	1.24%p				
	주택담보대출잔액 (십억 원)	790,418.3	0.0%	790,418.3	0.0%	5.7%	0.6%	790,418.3	
		612,316.8	29.1%	699,668.6	13.0%				

※ 주1 : 통계 발표 시점에 따라 당월 혹은 전월 집계치를 활용함.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분석함.

※ 주2 : 가격지수는 자료의 추가 수집 등 지수 작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시 갱신될 수 있음.

※ 자료 : 국토교통부, 한국부동산원, 한국은행, 부동산114

약어표(가나다 順)

용 어	내 용	비 고
BSI	기업경기실사지수(Business Survey Index)	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
CSI	소비자심리지수(Consumer Sentiment Index)	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
MoM	전월 대비 변화율(Month-on-Month)	
YoY	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(Year-on-Year)	
YTD	연초 대비 누적 변화율(Year-to-Date)	